



논문목록

Golaszewski T, Snow D, Lynch W, Yen L, Solomita D. A benefit-to-cost analysis of a work-site health promotion program. *J Occup Med* 1992;34(12):1164–1172

Brinkworth MH, Yardley-Jones A, Francis AJ, Hughes JA, Anderson D. A comparison of smokers and nonsmokers with respect to oncogene products and cytogenetic parameters. *J Occup Med* 1992;34(12):1181–1188

Middaugh DA, Pinney SM, Linz DH. Sick building syndrome: medical evaluation of two work forces. *J Occup Med* 1992;34(12):1197–1203

Ojanen K, Sarantila R, Klen T, Lotijonen A, Dangas J. Evaluation of the efficiency and comfort of protective clothing during herbicide spraying. *Appl Occup and Envi Hyg* 1992; 7(12):815–819

Stewart PA, Lemanski D, White D, Zey J, Herrick RF, Masters M, Rayner J, Dosemeci M, Gomez M, Pottern L. Exposure assessment for a study of workers exposed to acrylonitrile. I. Job exposure profiles: a computerized data management system. *Appl Occup and Envi Hyg* 1992;7(12):820–825

Cragle DL, Wells SM, Tankersley WG. An occupational morbidity study of a population potentially exposed to epoxy resins, hardeners, and solvents. *Appl Occup and Envi Hyg* 1992;7(12):835–839

Gressel MG, Hughes RT. Effective local exhaust ventilation for controlling formaldehyde exposures during embalming. *Appl Occup and Envi Hyg* 1992;7(12):840–845 *



김 규 상

주요논문초록

『산업장 건강증진프로그램의 편익비용 분석』

저 자 : Thomas Golaszewski, David Snow, Wendy Lynch, Louis Yen, Debra Solomita

출처 : Journal of Occupational Medicine 1992; 34: 1164-1172

1986-1990년 동안 시행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2,000년에 적용하여 편익비용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인건비, 자본 지출, 재료비, 임대료를 측정하고 의료비 절감(health care cost saving), 생산성 증가, 결근감소, 보험청구감소, 프로그램에 의해 발생한 수입비용에 의한 프로그램 편익(할인율 적용)을 비교하였다. 미래의 돈을 현재 돈 가치로 교정한 후 프로그램의 비용편익 분석결과 3.4로 추정되었다. 연구 디자인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프로그램 투자로 인하여 긍정적인 편익이 실현됨을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긍정적이며 확실한 편익비용비를 보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와 권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종양발생물질(oncogene product)과 세포질유전자 파라미터(cytogenetic parameter)에 관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비교』

저 자 : Martin Henry Brinkworth, Anthony Yardley-Jones, Anne Julia Edwards, Jane Anne Hughes, Diana Anderson

출처 : Journal of Occupational Medicine 1992; 34: 1181-1188

인체감시(human monitoring) 연구는 화학물질의 부작용을 평가하는 가치가 있는 도구이다. 세포질유전자 파라미터(cytogenetic parameter)는 자주 사용되지만 가능한 건강 부작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거의 없다. 최근에 폭로와 빌암위험인자의 가능하고 더 적절한 지표로써 혈장에서 종양발생단백(oncoprotein) 농도 측정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염색

체 손상(chromosome damage)과 달리 가능한 혼란 요인의 효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이 연구는 염색체 미입(chromosome aberration), 염색분체교환(sister chromatid exchange), 혈장 종양발생단백 농도(plasma ras oncoprotein level)에 대한 흡연효과를 특히 화학유해물질에 이미 이전에 폭로된 40명에서 비교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으나 염색분체 교환에서의 증등도 상승 효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효과는 없었다. 즉 흡연은 종양발생단백(oncoprotein) 농도를 이용한 인체감시연구에서 혼란요인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빌딩증후군』 - 두 사업장에 대한 의학적 평가

저 자 : D. Ann Middaugh, Susan M. Pinney, Douglas H. Linz

출처 : Journal of Occupational Medicine 1992; 34: 1197-1203

상기도 자극과 중추신경 증상 특성을 갖는 빌딩증후군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빌딩 환기 문제는 비록 원인 물질을 모른다 하더라도 빈발하여 나타나고 있다. 소수의 연구만이 빌딩내 거주자의 임상적 증상의 특성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이 연구는 두 사업장 근로자의 병력, 이학적 검사와 신경학적, 신경정신학적 집단 검사 등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이 집단에 대한 기초조사 평가를 비교한 결과는 유용하였다. 문헌에 보고된 증상이 두 사업장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났다. 일반적인 이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은 드물고 소수이었으나 신경학적, 정신신경학적 검사에서 정신상태, 소뇌 및 신경행동학적 장애를 보였다. 기초조사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 임상적 이상소견은 자기 제어적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입증하기 위해 빌딩내 거주자의 증상을 통제하여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